



**원광새마을금고, 다이로움 장터에 1000만원 기탁**

익산시는 지난 28일 원광새마을금고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후원된 성금은 다이로움 여름장터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원광새마을금고는 1979년 창립한 지역 금융회사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비롯해 소외계층에 1,00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지역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선 지원 600만 원 기탁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정책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다이로움 나눔장터는 2021년도에는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고 지난해 다이로움 박차 운영에 2,430만 원을 기탁했다. 올해도 나눔장터에 8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박차 운영에 2,8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원광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에 취약한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정성껏 마련한 기탁금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에 주시는 원광새마을금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 이영면-지리산농협, 흥부네 빨래터 후원 협약**

남원시 이영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윤종철)는 최근 지리산농협협동조합(조합장 정대환)과 취약계층의 쾌적한 보금자리 조성을 위해 '흥부네 빨래터' 운영에 관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리산농협협동조합은 빨래방 운영에 필요한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후원하여 빨래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며, '흥부네 빨래터'는 홀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이불 세탁 서비스로 7월 초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한편 윤종철 이영면장은 지리산농협협동조합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부귀면 지사협, 2분기 저소득층과 외식동행**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봉진/박영춘, 이하 지사협)가 지난 28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분기 외식동행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사협의 2024년도 시범사업으로서 분기별로 위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하며 무료로 외식을 체험하는 사업이다. 부귀는 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홀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안타까워한 '산들'이 대표는 식사 후원사업을 지사협에 제안했고, 커피에 반하다 대표가 함께하면서 협력사업이 되었다. 이 두 대표는 1분기에도 외식동행을 지원, 이들의 가게는 지사협에 매월 3만원 후원을 통해 이미 착한가게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지사협은 마을 이장과 지사협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외식동행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위원들 봉사활동을 이용하여 가게에 와서 외식을 하였다. 또한 처음 접해보는 수경재배 화분을 만들며 기뻐했으며, 식사용 농특산물 선물 받고 위원들 차장으로 편안하게 귀가했다. /진안=우태민기자

**장수군재향군인회, 영덕향교과 국민화합 친선행사**

장수군 재향군인회(회장 박용우) 및 여성회(회장 정인옥)는 지난 28일 경북 영덕 재향군인회(회장 문문걸, 여성회장 신옥이)와 부산 UN기념공원에서 만나 영호남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재향군인회가 영남과 호남간 상호 교류를 통해 친목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산물 및 관광 홍보와 산업지역 또는 안보 전적지 견학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하여 국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988년 10월 29일부터 매년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장수향교와 영덕향교는 자매결연을 맺어 해마다 번갈아가며 상호 방문하여 뜨거운 열기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는 장수향교에서 임직원 및 여성회원 30여명이 방문하여, UN기념공원에서 영덕향교와 함께 참여하고, 기념공원을 견학하며 호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안보사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영부터 녹색문화, 영까지 탄소중립’**

**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 ‘영채! 서포터즈’ 7월부터 활동 개시... 매주 콘텐츠 제작·홍보**

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이 도내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도청사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선발된 '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은 실생활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탄소중립을 접할 수 있도록 도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으로 전북자치도와 전북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민참여단은 지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10명이 선발됐다. 오리엔테이션은 최종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입장장 수여, SNS 콘텐츠 제작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도민참여단원은 "평소에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아 지원하게 되었다"며, "열심히 활동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민참여단의 구호(슬로건)는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나가는 의미로 영(Zero)부터 차곡차곡 녹색문화, 영(Zero)까지 차근차근 탄소중립'으로 정했다. /오만호기자



또한, 구호와 연계해 도민참여단을 '전북 탄소중립 영채! 서포터즈'라는 별칭으로 삼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 내용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노하우 △친환경 제품·가게·맛집 리뷰 △탄소중립 관련 행사 홍보 △환경 이슈 리뷰, △전문가 인터뷰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SNS,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는 것이다. /오만호기자

**무주군에 귀뚜라미그룹서 장학금 3000만원 기탁**

무주군은 지난 28일 귀뚜라미그룹(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장학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재춘 무주지점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박규태 귀뚜라미 전북지사장은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학금은 관내 중·고등학교와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중학생 30명과 고등학생 15명 등 총 45명에게 전달(중학생 1인 당 50만 원, 고등학생 1인당 1백만 원)하고 위기청소년 및 사계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필요 지원 연계 서비스 지원 재원으로도 투입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귀뚜라미그룹이 무주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고 전했다. 한편, 귀뚜라미그룹은 지난 39년간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장학사업 이외도 학술연구 지원 사업, 교육기관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558억 원 규모를 사회에 환원하며 나눔경영에 앞장서 왔다. 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는 창업주 최진민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인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고자 1985년부터 전국 각지의 모범 학생과 저소득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5만 명을 선발해 총 34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는 창업주 최진민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인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고자 1985년부터 전국 각지의 모범 학생과 저소득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5만 명을 선발해 총 34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남원시 지사협, 취약계층에 선풍기 전달**

남원시는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운영실현에 취약한 세대에 선풍기 25대(환가액 1천만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선풍기는 남원시가 지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1천만원으로 마련되었으며, 하절기 폭염을 대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일환으로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부를 살펴 필요할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극심한 무더위와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더욱 촉촉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



민하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예보에 조금이라도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냉방용품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 장수읍 지사협, 첫 돌 아이 축하 사업 응원**

장수군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용호, 김인기)는 관내 첫 돌을 맞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1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과 축하 케이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첫 돌을 지역주민들이 축하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눈길을 끈다. 특히 아이의 성장에 지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했다. 조용호 면장은 "출생에 이어 양육의 기쁨을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아이 낳기 좋은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출산 시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첫돌아이 축하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인월면 신촌마을서 현장 체험의 날 운영**

남원시는 지난 28일 인월면 신촌마을에서 주민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원서비스(지역·세무 상담, 보조사업 절차 안내 등) △건강부스(혈당·혈압·콜레스테롤 체크, 치매·정신건강상담) △체험부스(네일아트, 소방안전교육) △떡가디부스 등 4가지 분야로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0만원봉사대가 전기·가스·수도·보일러·농기계점검·수리, 이동빨래방, 청소, 칼 같이 등을 진행하여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은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간담회와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현장봉사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발전 다짐 대회 성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장수군연합회(회장 한병목)는 지난 27일 한누리전당에서 제39회 농업발전 다짐대회 및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수군후계농업경영인의 미래 농업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하고, 회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행사는 농업인들을 위한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가족축마를 체육대회로 이어졌다. 개회식에서는 우수농업경영인 2명(정자영, 박준영 씨)을 대상으로 군수 등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한병목 회장은 "고부가가치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경영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장수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회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군은 500여 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래 후계농업인력 육성과 사과, 토마토 한우 등 지역 주요 농축산물의 선도적인 재배를 위해 지역 농업의 지도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이금남 남원시 왕정동 주민자치위원장 선출**

남원시 왕정동은 지난 24일, 제14기 주민자치위원회 첫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이금남 선출하였으며, 이 위원장은 왕정동 첫 여성 위원장이 되었다. 신임 이 위원장은 4년간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으며, 여성 특유의 차분함과 포용력, 세심함으로 왕정동 자치사랑방 발전과 프로그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동민들과 자치위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활성화로 동민들께서 편안하고 활기차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다"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병오 동장은 헌신·봉사로 왕정동 위원회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김종숙 전(前) 주민자치위원장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금남 위원장



**진안 백운면지사협, 2차 정기회의 개최**

백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 이하 협의체)가 지난 6월 28일 제2차 정기회의 및 복지기동대 위촉식을 개최하고 2024년도 하반기 마을 복지계획 중점사업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추진사업 보고 및 하반기 복지사업 세부계획 수립,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한 특화사업 '백운면 복지기동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들의 역할 및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백운면 복지기동대는 '전북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취약계층의 긴급 집수리, 주거환경개선, 전기·가스 안전 점검 등 생활불편문제를 개선하고 긴급 위기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들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봉사 등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였고, 하반기에 진행되는 지사협의 중점사업(어르신 건강간식꾸러미 사업, 어르신 나들이사업, 폭력예방교육, 부부교육, 청소년캠프 등)의 대상자 발굴 등 세부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복지기동대장을 맡은 박희곤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들을 찾아내 불편한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복지기동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민기자